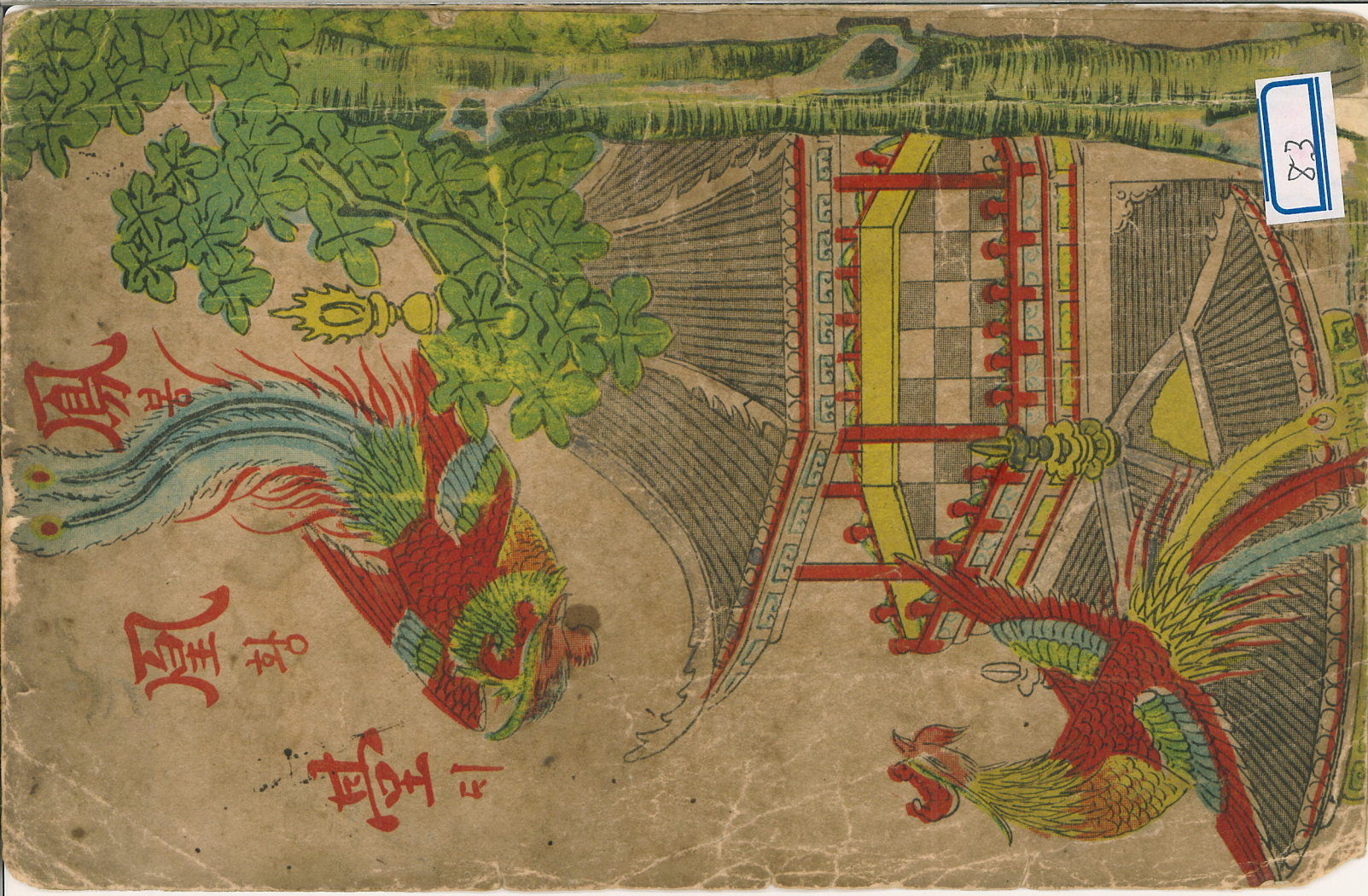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Kodak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봉황ᄃᆡ

(鳳凰臺)

악ᄒᆞᆫ나무에ᄂᆞᆫ 악ᄒᆞᆫ실과가 밋치고 션ᄒᆞᆫ나무에ᄂᆞᆫ 션ᄒᆞᆫ실과가 밋치ᄂᆞ니 범샹ᄒᆞᆫ 나무도 이러ᄒᆞ거든 하믈며 하ᄂᆞᆯ에셔 특별이 품부ᄒᆞ신 신령ᄒᆞᆫ 지각을 가진 사ᄅᆞᆷ이야 더구나 이러ᄒᆞᆫ 리치가 엇지 업ᄉᆞ리오 악ᄒᆞ면 반다시 악ᄒᆞᆫ결과가 잇고 션ᄒᆞ면 반다시 션ᄒᆞᆫ결과가 잇ᄂᆞ니 악ᄒᆞᆫ결과ᄂᆞᆫ 무엇인고 즐거움ᄭᅳᆺ헤 셔러움이오 션ᄒᆞᆫ결과ᄂᆞᆫ 무엇인고 고셩ᄭᅳᆺ헤 영화니라 녜로부터 지금ᄭᅡ지 몃쳔년동안에 션ᄒᆞᆫ결과를 어든사ᄅᆞᆷ과 악ᄒᆞᆫ결과를 당ᄒᆞᆫ사ᄅᆞᆷ을 이로 ᄉᆞᆫ가락으로 측량ᄒᆞ야 세일수가 업겟지마ᄂᆞᆫ 션ᄒᆞᆫ결과에ᄂᆞᆫ 더 리대봉과ᄀᆞᆺ치 신통ᄒᆞᆷ과 악ᄒᆞᆫ결과에ᄂᆞᆫ 왕희와ᄀᆞᆺ치 샹쾌ᄒᆞᆷ이 ᄯᅩ 다시 업ᄉᆞᆯ듯ᄒᆞ도다 녯말에 하ᄂᆞᆯ을 슌히ᄒᆞᄂᆞᆫ쟈ᄂᆞᆫ 흥ᄒᆞ고 하ᄂᆞᆯ을 거ᄉᆞ리ᄂᆞᆫ쟈ᄂᆞᆫ

登錄番號 3160
分類番號
圖書番號

망ᄒᆞᆫ다ᄒᆞ니 이로 말ᄆᆡ암어 보건ᄃᆡ 흥ᄒᆞᆷ과 망ᄒᆞᆷ이 젼혀다 져ᄒᆞ기에 달닌 것이라 졔가 잘ᄒᆞ고보면 하ᄂᆞᆯ이 엇지 망케ᄒᆞᆯ수 잇스며 졔가 잘못ᄒᆞ고보면 하ᄂᆞᆯ이 엇지 흥케ᄒᆞᆯ수 잇스리요

하ᄂᆞᆯ의 셩품은 어지신것ᄲᅮᆫ이라 사ᄅᆞᆷ이 하ᄂᆞᆯ셩품을 좃차 어질면 하ᄂᆞᆯ이 깃버ᄒᆞ시고 하ᄂᆞᆯ셩품을 거ᄉᆞ려 어지〻아니ᄒᆞ면 하ᄂᆞᆯ이 로여워ᄒᆞ시ᄂᆞ니 엇지 두렵지아니ᄒᆞᆯ가 리대봉의 ᄌᆞ초지종 ᄉᆞ젹을보면 일〻이 다 하ᄂᆞᆯ뜻 아니미 업도다 대봉의집이 그 션됴젹브터 루ᄃᆡ 젹션ᄒᆞᆫ집으로 대봉의부친 리익이 더욱 졍직ᄒᆞᆫ사ᄅᆞᆷ인ᄃᆡ 집이 긔쥬ᄯᅡ 모란동에잇고 ᄯᅢ는 명나라 말셰러라 일쯕 등과ᄒᆞ야 벼슬이 이부시랑에 쳐ᄒᆞ매 명망이 조졍에 읏듬이라 부귀와 공명은 이러ᄒᆞ되 다만 슬하에 일졈혈육이업셔 미양 슬허ᄒᆞ더니 하로는 부인양씨로더브러 월하각에올나 셔로 슬허ᄒᆞ며 봄빗을 구경ᄒᆞ다가 우연이 탄식ᄒᆞ야ᄀᆞᆯᄋᆞᄃᆡ 부귀는 그릴것이업스나 유업을 직힐쟈

ㅣ 업스니 엇지 한심치아니리요ᄒᆞ신ᄃᆡ 부인양씨 ᄯᅩᄒᆞᆫ 근심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ᄌᆞ식이 업슴은 쳡의죄로소이다 ᄒᆞ고 란간을 의지ᄒᆞ야 잠간 조으더니 홀연간 엇던 로인한분이 아관도복(峨冠道服)으로 빅우션을쥐고 셔편구름사이로셔 바ᄅᆞᆷ을좃차 나려와 시랑침셕에 좌졍ᄒᆞ거ᄂᆞᆯ 시랑이 이러례ᄒᆞᆫ후 무러ᄀᆞᆯᄋᆞᄃᆡ 로인이 욕됨을 도라보지 아니ᄒᆞ시고 루디에 왕림ᄒᆞ시니 무ᄉᆞᆷ 일을 이르고져 ᄒᆞ심닛가 로인이 ᄀᆞᆯᄋᆞᄃᆡ 로부는 평셩에 하ᄂᆞ님ᄭᅴ 긔도ᄒᆞ고 경비를 일슴는사ᄅᆞᆷ인ᄃᆡ 경비ᄒᆞ는 쳐소가 여러히 풍우에 퇴락ᄒᆞᆷ을 면치못ᄒᆞ와 ᄆᆞ음에 미안황송ᄒᆞ야 집을 중슈코져 연보금을 ᄉᆞ쳐로 쳥구ᄒᆞ며 다니더니 드른즉 샹공게옵셔 젹션ᄒᆞ시가를 즐겨ᄒᆞ시고 의무직히기를 더욱 됴와ᄒᆞ신다 ᄒᆞ기로 쳔리를 멀니녁이지 아니ᄒᆞ고 왓ᄉᆞ오니 샹공은 깁히싱각ᄒᆞ야 쳐분ᄒᆞ소셔 ᄒᆞ거ᄂᆞᆯ 시랑이 다시 무러ᄀᆞᆯᄋᆞᄃᆡ 집을 중슈ᄒᆞ려면 지력이 얼마나 들너잇가 로부ㅣᄀᆞᆯᄋᆞᄃᆡ 지력은 다소 졍한이 업ᄉᆞ오

니샹공에 쳐분이로소이다 ᄒᆞ거늘 시랑이 골ᄋᆞ디 나는 죄악이 만ᄒᆞ야 나히 ᄉᆞ십이나 되도록 압흘 인도ᄒᆞ교 뒤를 이을ᄌᆞ식이 업스니 우리사후에 여간가장을 뉘게 젼ᄒᆞ리오 찰하리 하ᄂᆞ님씌 졍셩을밧쳐 후ᄉᆡᆼ길이나 닥그리라ᄒᆞ고 지화 오만원과 빅미 오쳔셕을 연보칙에 긔록ᄒᆞᆫ디 로인이 밧아가지고 무한이 치샤ᄒᆞ야 골ᄋᆞ디 로부가 멀니와셔 젹지아닌지물을 엇어가오니 은혜 란망이로소이다 샹공은무ᄌᆞᄒᆞᆷ을 한탄마ᄋᆞᆷ소셔 ᄒᆞ고 표연이 구름을좃차도라가거늘 놀나 ᄭᆡ다르니 한 ᄭᅮᆷ이라 심신이 확홀ᄒᆞ야 교문을 열고보니 과연 연부에 긔록ᄒᆞᆫ것이 업더라 이로보아도 텬도가 엇지 조곰이나 무심ᄒᆞ리오ᄒᆞ교 부원 양씨로더브러 몽ᄉᆞ를 의론ᄒᆞ며 귀ᄌᆞ나 졈지ᄒᆞ실가 바라더니 과연 그달브터 틱긔잇셔 십삭이 당ᄒᆞ매 하로ᄂᆞᆫ 부인ᄭᅮᆷ에 봉황한ᄌᆞ웅이 하ᄂᆞᆯ노브터 나려오더니 암봉은 쟝미동 쟝한림집으로가고 수봉은 부인품에 원기더니 그ᄭᅮᆷ서며 슌산싱남ᄒᆞ니 일등긔남ᄌᆞ라 시

랑이 대희ᄒᆞ야 일홈을 대봉이라ᄒᆞ다

각셜쟝미동사ᄂᆞᆫ 쟝한림이 ᄯᅩᄒᆞᆫ 어진사름으로 일즉 룡문에올나 벼슬이 한림에이르니 명망이 조졍에 진동ᄒᆞ교 부귀 겸젼ᄒᆞ나 ᄯᅩᄒᆞᆫ 슬하에 혈육이업셔 못ᄂᆡ 한탄ᄒᆞ더니 부인쇼씨 우연 틱긔잇셔 십삭을 당ᄒᆞ매 하로ᄂᆞᆫ 부인ᄭᅮᆷ에 봉황 ᄌᆞ웅이 하ᄂᆞᆯ노좃차 나려와 수봉은 모란동 리시랑집으로가고 암봉은 부인품에 원기며 혼미즁 아히를 탄싱ᄒᆞ니 진짓 녀즁군ᄌᆞ라 ᄭᅮᆷ이야기를 한림씌 고ᄒᆞᆫ디 한림이 크게깃버ᄒᆞ야 일홈을 ᄋᆡ황이라ᄒᆞ고 즉시 모란동 리시랑을 차ᄌᆞ보니 시랑이 반겨골ᄋᆞ디 한림은 엇진연고로 일즉 차ᄌᆞ기신지 못ᄂᆡ 감ᄉᆞᄒᆞ여이다 한림이일아ᄃᆡ 례의집에 산고 잇ᄂᆞᆫ디 이샹ᄒᆞᆫ 몽조가 잇기로 샹ᄃᆡᄒᆞ야 알아보기위ᄒᆞ야 특별이 차ᄌᆞ왓노이다 시랑이 ᄃᆞᆺ고골ᄋᆞ디 어느때 산고가 계셧스며 남녁잔 무엇을 나어계시며 몽조ᄂᆞᆫ 엇더ᄒᆞ신닛가 한림이골ᄋᆞ디 ᄯᅴᄂᆞᆫ 지나간밤 ᄌᆞ시옵고 아히ᄂᆞᆫ 녀

ᄌᆞ오며 몽조는 여ᄎᆞ々々ᄒᆞ여이다 시랑이글ᄋᆞᄃᆡ ᄂᆡ집에셔 ᄯᅩᄒᆞᆫ 앗가ᄌᆞ시에 산고잇셔 남ᄌᆞ를 탄싱ᄒᆞ얏는ᄃᆡ 몽조가 ᄯᅩᄒᆞᆫ 여합부절ᄒᆞ게 마지니 과연 심상치아니ᄒᆞᆫ 알이로소이다 ᄒᆞ고 다시글ᄋᆞᄃᆡ 형과 뎨가 쥭마고우로 한가지 룡문에올나 텬ᄌᆞ를 셤기더니 나는 임의 남ᄌᆞ를 탄싱ᄒᆞ얏스나 형은 아즉 귀ᄌᆞ를 엇지못ᄒᆞ시니 ᄃᆡ신 민망ᄒᆞ여이다 한림이글ᄋᆞᄃᆡ 형은 남ᄌᆞ를낫코 뎨는 녀ᄌᆞ를나은바 한날한시에 탄싱키는 셰샹에 극히 드믄일이라 원컨ᄃᆡ 혼인을 미리 언약ᄒᆞᆷ이 엇더ᄒᆞ니잇가 시랑이 대희ᄒᆞ야 즉시 허락ᄒᆞ고 셔로 즐기다가 쟝한림이 집에도라와 부인을ᄃᆡᄒᆞ야 녀ᄌᆞ의 뎡혼ᄒᆞᆫ말을 의론ᄒᆞ며 즐기니라 어언간 셰월이 여류ᄒᆞ야 대봉의 나히 십셰되매 풍채 름々ᄒᆞ고 시셔와 ᄇᆡᆨ가의글을 통달치못ᄒᆞᆷ이 업더니 하로는 이왕셔칙은 물니치고 다시 병셔를찻더니 시랑이 ᄭᅮ지져왈 셩현의글도 무수ᄒᆞ거늘 ᄐᆡ평셩ᄃᆡ에 엇지ᄒᆞ야 귀신도 측량치못ᄒᆞᆯ 병셔를 청ᄒᆞᄂᆞ냐 대

봉이 고ᄒᆞ야글ᄋᆞᄃᆡ 이젼에 황뎨헌원씨는 만고영웅이로ᄃᆡ 치우에 란리를만나시고 뎨요도당씨도 만고셩인이로ᄃᆡ ᄉᆞ흉에 란리를 당ᄒᆞ셧ᄉᆞ오니 엇지 ᄆᆡ양 ᄐᆡ평ᄒᆞᆷ만 밋ᄉᆞ오리잇가 쟝부가 셰샹에처ᄒᆞ매 지모방략을 품어가지고 룡문에올나 요슌ᄀᆞᆺ흔 셩군을셤겨 허리에 황금인슈을차고 머리에 ᄇᆡᆨ금투구를쓰고 ᄇᆡᆨ모황월과 쟝챵대검을잡고 젼장에 나가 반젹을베여 난셰를 평졍ᄒᆞ고 ᄐᆡ평시절을만나 공명을 죽ᄇᆡᆨ에 올니고 만종록을밧아 우흐로 군샹의 덕을나타내며 아리로 부모의 은혜를갑고 종신부귀ᄒᆞᆷ이 뎨일될것이어늘 엇지 셩현의글만 ᄃᆡᆨᄒᆞ와 셰월을 보내오리잇가 시랑이 대희ᄒᆞ야글ᄋᆞᄃᆡ 나는 조졍에잇셔도 ᄃᆡ위가 존즁치 못ᄒᆞ거니와 너는 족히 녯사름을 당ᄒᆞ리로다

각셜 이젹에 황뎨 유약ᄒᆞ샤 나라일이 졈々 쇠잔ᄒᆞ매 우승샹왕희의 당파가 극셩ᄒᆞ니 한심ᄒᆞ도다 맛치 한나라 왕망과 진나라 왕돈의 셰계와ᄀᆞᆺᄒᆞ

여 어진군조는 디졉지아니ᄒᆞ고 간특ᄒᆞᆫ 소인으로더브러 당이되ᄆᆡ 슬프다 나라일이 분란ᄒᆞ야 나라의 위틱홈이 조셕에잇는지라 이때 시랑리익이 상소ᄒᆞ야ᄀᆞᆯ오ᄃᆡ 조정형셰를 ᄉᆡᆼ각ᄒᆞ오니 ᄉᆞᆼ샹왕회의당이 조정에 가득ᄒᆞ와 아당ᄒᆞᆫ말슴으로 황상의 총명을 가리우고 셩덕을 더레오니 ᄇᆞᆨ결폐하는 깁히 통촉ᄒᆞ야 소인을 멀니ᄒᆞ시고 군조를 쓰시와 즁대ᄒᆞᆫ정ᄉᆞ를 발긔소셔 ᄒᆞ얏거늘 황뎨보시고 ᄉᆞᆼ샹왕회와 샹셔지틱을 브르샤 그샹소를 내여보이신ᄃᆡ 회와틱이 업다려 알외여ᄀᆞᆯ오ᄃᆡ 시랑리익이 망샹ᄒᆞᆫ 힝ᄉᆡᆨ으로 조정을 핍박ᄒᆞ고 대신을 모함ᄒᆞ오니 그죄를 의론ᄒᆞ오면 쥭여 후사ᄅᆞᆷ을 증계ᄒᆞ옴이 맛당ᄒᆞ오나 원컨ᄃᆡ 폐하는 깁히 ᄉᆡᆼ각ᄒᆞ옵소셔 ᄒᆞ거늘 황뎨 왕회의말을 올타ᄒᆞ시고 리익은 관직을 삭탈ᄒᆞ야 슈만리 무인졀도로안치ᄒᆞ시고 그아ᄃᆞᆯ 대봉은 오쳔리 ᄇᆡᆨ셜도로 졍ᄇᆡᄒᆞ시니라

이때 왕회가 분심을 이긔지못ᄒᆞ야 ᄆᆞ음에 헤오ᄃᆡ 리익이 나를 ᄒᆡ코져ᄒᆞ

얏스니 내 엇지 져를 살녀두리오ᄒᆞ고 함셰가는 사ᄅᆞᆷ을 불너 즁상을쥬고 분부ᄒᆞ야ᄀᆞᆯ오ᄃᆡ 너의들이 ᄇᆡ타고 가다가 무변대ᄒᆡ에 이르거든 리익의 부조를 결박ᄒᆞ야 물속에 너흐라ᄒᆞ니 모든ᄉᆞ공이 샹급을밧고 깃거ᄒᆞ며 그리ᄒᆞᆯ쥴노 쳥령ᄒᆞ더라 이ᄯᅢ 시랑이 집에도라와 부인을ᄃᆡᄒᆞ야 통곡ᄒᆞ야ᄀᆞᆯ오ᄃᆡ 나는 스ᄉᆞ로 지은죄로 뎐조ᄭᅦ 쵹로되여 죽을ᄯᅡ 으로감이 맛당ᄒᆞ거니와 대봉은 무ᄉᆞᆷ죄로 오쳔리 ᄇᆡᆨ셜도에 가느잇가ᄒᆞ며 ᄉᆞᆷ히우니 대봉이 또ᄒᆞᆫ 눈물을 금치못ᄒᆞ다가 강잉이 눈물을거두고 부모를 위로ᄒᆞ야ᄀᆞᆯ오ᄃᆡ 녯말에 죄가업스면 두렵지아니ᄒᆞ다 ᄒᆞ오니 우리부조ㅣ 졀도로 뎡ᄇᆡ가오나 요힝 사라오면 모쳔을 다시 ᄇᆡ을것이오 쥭는다ᄒᆞ여도 뎐디 신명에 붓그럽지 아니ᄒᆞ거니와 다만 념녀되옵는바는 역젹 왕회와 소인지틱을 쥭이지못ᄒᆞ야 나라의 위틱홈을 면치못ᄒᆞᆯ가 홈이로소이다 양씨부인이 ᄯᅩᄒᆞᆫ시랑을 붓들고 ᄉᆞᆷ히우러ᄀᆞᆯ오ᄃᆡ 녯글에 ᄒᆞ얏스되 소무ㅣ 북히

샹눈구멍에셔 열아홉히를 고싱ᄒᆞ다가 고국산쳔에 다시도라와 공명을 죽
빅에 올녓다ᄒᆞ오나 엇지타 시랑의 부즈여 무인졀도에 가오면 어늬셰월
에 다시맛나오며 나는누를 의지ᄒᆞ고 남은셰월을 보내리오 하ᄂᆞᆯ에 겹우
직녀셩은 일년일도 은하수에 오작교를 건너 샹봉ᄒᆞ거니와 오쳔리 빅셜
도는 나는시도 출입지못ᄒᆞ는 곳이라 엿지 샹봉ᄒᆞ기를 바라리오ᄒᆞ며 대
셩통곡ᄒᆞ니 대봉이 그 거동을보고 더욱 망극ᄒᆞ야 엇지ᄒᆞᆯ쥴 모르는지라
이때에 나는시와 긔는즘싱이라도 슬허 ᄒᆞ는듯ᄒᆞ더라 이러ᄒᆞᆯ즈음에 사공
이비를 띄우려 지촉ᄒᆞ니 시랑과 대봉이 부인과 쟝한림을 리별ᄒᆞ고 비에
올으며 옥갓흔 귀밋히 두줄눈물이 삼쳔리 략수를 붓듸일너라
이윽고 흔구름이 흣허지더니 순풍이 이러나며 물결이 흉々ᄒᆞ야 비가 빠
르기 살갓더라 ᄉᆞᄒᆞᆯ만에 한곳에 다々르니 ᄉᆞ방으로 보아도 사ᄅᆞᆷ사는 연
긔는 한졈도 보지못ᄒᆞ고 다만 하ᄂᆞᆯ만 보이는 망々ᄒᆞᆫ 물뿐이로다 어늬곳

인쥴 향방을 가랴ᄒᆞ리오 그러ᄒᆞᆫ쥴 사공 십여명이 부지불각에 일제이 달
녀드러 시랑과 대봉을 결박ᄒᆞ거ᄂᆞᆯ 시랑의부즈ㅣ 대경실식ᄒᆞ야 그 연고
를 무른듸 사공들이 듸답ᄒᆞ야일으ᄃᆡ 이곡졀은 네 알비 아니라ᄒᆞ고 물에
던지려ᄒᆞ거ᄂᆞᆯ 시랑부즈ㅣ 황々급々ᄒᆞᆫ쥴 사공다려 일으ᄃᆡ 우리부자는 셰
샹에 죄업는 사ᄅᆞᆷ이라 만리졀도에 가기도 원굴ᄒᆞ거ᄂᆞᆯ 너의들이 별안간
결박ᄒᆞᆷ은 무슴일고 우리부즈를 죽이려거든 결박이나말교 물에던지라 ᄒᆞᆫ
듸 여러사공이 호령만 츄샹ᄀᆞᆺ치ᄒᆞ더니 그쥼에 늙은사공하나이 이러나여
러사공을 경계ᄒᆞ야ᄀᆞᆯ으ᄃᆡ 녯말에 일넛스되 공ᄉᆞ에도 ᄉᆞ々가잇다 ᄒᆞ얏거
든 허물며 시랑부즈는 아모죄가업는 사ᄅᆞᆷ인듸 무슴곡졀이잇셔 수쥼에
던지려던지 결박을 아니ᄒᆞ여도 어련이 쟝ᄉᆞ지늬깃나 긔위 죽
는사ᄅᆞᆷ의 소원이 그러ᄒᆞᆫ듸 구지 고집ᄒᆞᆷ은 그른쥼 더욱 그른비라ᄒᆞ고 그
두몸에 민거슬 그른후 시랑을 몬져 흉々ᄒᆞᆫ 챵파에 던지니 대봉이 이경

샹을보고 망극ᄒᆞ야 업드러져 긔졀ᄒᆞ다가 졍신을 진졍ᄒᆞ야가지고 여러사공을 ᄭᅮ져저골ᄋᆞᄃᆡ 사ᄂᆞᆫ것은 붓침이오 죽ᄂᆞᆫ것은 도라감이며 ᄯᅩ 녜로브터 충신렬ᄉᆞ들은 간혹 수즁고혼이 되얏거든 허믈며 우리ᄀᆞᆺ흔 잔명이야 죽기를 엇지 앗기리요 나라이 불힝ᄒᆞ야 간신이 권셰를잡으니 텬도가 무심ᄒᆞ다 넓고 큰이텬디간에 우리부ᄌᆞ가 용납지못ᄒᆞ게되니 맛당히 수즁룡궁에 드러가 굴삼녀의 충혼과 오ᄌᆞ셔의 졍졀을 의론ᄒᆞᆷ이 올히녀이ᄂᆞᆫ비라 엇지 일호라도 너희놈들의게 굴ᄒᆞ야 살기를 바라리오ᄒᆞ고 입으로 피를 한업시 토ᄒᆞ니 물결이 희미ᄒᆞ고 지쳑을 분변치못ᄒᆞᆯ너라 대봉이 다시 하ᄂᆞᆯ을 우러ᄭᅥ 통곡ᄒᆞ다가 물에 ᄯᅱ여드러가니라 이에 여러 사공이 도라와 왕희를보고 시랑의 부ᄌᆞ를 물속에 너흔ᄉᆞ유로 고ᄒᆞᆫᄃᆡ 왕희듯고 대단히 깃버ᄒᆞ더라 가련ᄒᆞ다 시랑부자ᄂᆞᆫ 속졀업시 수즁고혼이 되고말ᄲᅮᆫ이로다

각셜 이져에 쟝미동 쟝한림이 그 녀자 의황의 혼ᄉᆞ를 이루지 못ᄒᆞᆫ즁 대봉부ᄌᆞ의 젹소에감을보고 분긔를 이긔지못ᄒᆞ다가 홀연이 즁풍ᄒᆞ야 빅약이 무효ᄒᆞ니 한림이 셰샹에 류ᄒᆞ지못ᄒᆞᆯ줄을 자량ᄒᆞ고 울며 탄식ᄒᆞ야골ᄋᆞᄃᆡ 사ᄅᆞᆷ의 목숨이 하ᄂᆞᆯ에잇ᄉᆞ니 한ᄯᅢ를 빌기어렵도다 나ᄂᆞᆫ 와셔죵신ᄒᆞ니 오히려 원통ᄒᆞ미 업거니와 시랑부자ᄂᆞᆫ 응당 수즁고혼이 될듯ᄒᆞ니 대봉의 신수도 가련ᄒᆞ거니와 네 일신이 더욱 처량ᄒᆞ도다 의황의몸이 남ᄌᆞ가 되엿더면 일후 쟝셩ᄒᆞ야 오날ᄂᆞᆯ 황텬으로가ᄂᆞᆫ 내의 원한을 씨슬것이로ᄃᆡ 네몸이 녀ᄌᆞ라 엇지 유의ᄒᆞᆯ수 이스며 수즁원혼 시랑의 분ᄒᆞᆷ이야 더구나 말ᄒᆞᆯ쇼냐 ᄒᆞ고 문득 셰샹을 ᄯᅥ나니 부인쇼씨 졍신이 아득ᄒᆞ야 ᄯᅩᄒᆞᆫ 명지 경각이라 쇼씨 혼미ᄒᆞᆫ즁 의황을불너 손을잡고 탄식ᄒᆞ야골ᄋᆞᄃᆡ 슯흐다 네신셰가 가련ᄒᆞ도다 나도 ᄯᅩᄒᆞᆫ 금방죽ᄂᆞᆫ 사ᄅᆞᆷ이라 네한몸을 어이 죠쳐ᄒᆞᆯ고 텬샹에 무삼죄로 셰샹에 녀ᄌᆞ몸이 되야나셔 알조에

대변을 겁후 당ᄒᆞ게되니 무의무탁ᄒᆞᆫ 뎌일신을 엇지 ᄒᆞ잔말고 박졀ᄒᆞ다 네신상이여 ᄒᆞ며 슯흐믈 ᄎᆞ마 이긔지못ᄒᆞ다가 운명ᄒᆞ니 쇼졔 하로ᄂᆡ에 부모의 구몰ᄒᆞ심을 당ᄒᆞ니 그 망극ᄒᆞᆫ 졍상이 졔상에 엇지 다시잇스리요 여러번 긔졀ᄒᆞ야 이지못ᄒᆞ다가 비복들의 구원을 인ᄒᆞ야 졍신을 겨우 진졍ᄒᆞ미 이연ᄒᆞᆫ경상을 엇지다 측량ᄒᆞ리오 쇼졔 슯흠을 억졔ᄒᆞ고 초종양례와 삼년초토를 졀ᄎᆞ잇는 례로 지내니 규즁의 연々ᄒᆞᆫ 녀ᄌᆞ로ᄃᆡ 능히 지각잇는 장부를 당ᄒᆞ더라

졔월이 무졍ᄒᆞ야 초토를 맛치미 쇼져의나이 십팔졔라 화려ᄒᆞᆫ 옥안과 운빈이 당졔에 무쌍일뿐아니라 삼강오륜과 졔샹범빅은 ᄂᆡ웃사ᄅᆞᆷ을 압두ᄒᆞ고 쳔연ᄒᆞᆫ ᄃᆡ도와 졍결ᄒᆞᆫ 힝실이 일국에 자々ᄒᆞ더라 ᄃᆞᆺ는자ㅣ ᄂᆡ아니 칭찬ᄒᆞ리요 이때 승샹왕희 한아ᄃᆞᆯ을 두엇스니 일홈은 셕연이라 풍치도 으졋ᄒᆞ고 문필도 도져ᄒᆞ야 한ᄯᅥ 명망이 또ᄒᆞᆫ 쟝ᄒᆞᆫ지라 각별ᄉᆞ랑ᄒᆞ야 혼쳐를

널니구ᄒᆞ되 일즉 셕연과 ᄀᆞᆺ흔짝이 업슴으로 오ᄃᆡ 원을 이루지못ᄒᆞ더니 맛참 괴쥬 쟝미동 쟝한림의녀ᄌᆞ 잇단말을듯고 장가드리고져ᄒᆞ야 한림의 종졔 쟝쥰을 명ᄒᆞ야 극진후ᄃᆡᄒᆞ고 혼연이 의론ᄒᆞ야ᄀᆞᆯ으ᄃᆡ 그ᄃᆡ의종형은 일즉 졔상을 바리고 그집에 다시 주쟝이업스니 그ᄃᆡ가 즁ᄆᆡ되여 귀ᄒᆞ신 종질녀와 나의 쳔ᄒᆞᆫ자식으로 혼인을 이루게ᄒᆞ라 ᄒᆞᆫᄃᆡ 쟝쥰이 즐겨 허락ᄒᆞ고 집에 도라와 안히 진씨를보내여 쇼져와 슈작ᄒᆞ다가 승샹왕희의 아ᄃᆞᆯ을 입에 츔이업시 일ᄏᆞᆺ고 그후 혼인말을 자어ᄂᆡ여 로구쟝이년의 과부호리듯 거진한시간이나 감언리셜노 살ᄀᆞᆺ치 즁언부언ᄒᆞ며 쇼이거늘 쇼져ᄃᆡ답ᄒᆞ야ᄀᆞᆯ으ᄃᆡ 아자마님께셔 이ᄀᆞᆺ치 극진ᄒᆞᆫ ᄆᆞ음으로 나를 위ᄒᆞ야 혼인을 뎡코져ᄒᆞ시니 감사ᄒᆞ기 가이업ᄉᆞ오나 우리아버지 어머니 싱젼에 모란동 리시랑의아ᄃᆞᆯ과 벌셔 뎡혼호옴은 아자마님도 임의 통촉ᄒᆞ시는ᄇᆡ라 그러쳐아니ᄒᆞ얏더면 엇지ᄒᆞᆯ번ᄒᆞ엿던지 사졔 괴위 이러ᄒᆞ옴으로 이번 이

말솜에디ᄒᆞ야 과연 봉힝ᄒᆞᆯ슈 업도 쇼이다 ᄒᆞ얏더니 진씨 도로혀 무료ᄒᆞᆷ을 씌고 도라와 쟝준을보고 쇼져의 ᄒᆞ던말을 쳐음브터 ᄭᅳᆺ까지 셰々이 젼ᄒᆞᆫ디 쟝쥰이 또ᄒᆞᆫ 한림집에가니 쇼졔 흔연이 영졉ᄒᆞ는지라 쟝쥰이 쇼져다려 ᄀᆡ유ᄒᆞ야ᄀᆞᆯᄋᆞ디 부々유별은 오륜에 썻々ᄒᆞᆫ일이어늘 인ᄉᆞ가 변쳔ᄒᆞ고 조물이 싀긔ᄒᆞ야 형님ᄂᆡ외분 구몰ᄒᆞ시고 다시 쥬쟝이업스니 너의 빅년평셩이 그아니 가련ᄒᆞ냐 시방 너의 쳔속이라고는 다만 나하나뿐이로구나 내엇지 네게향ᄒᆞ야 ᄆᆞᄋᆞᆷ이 온젼ᄒᆞ며 념녀가 범々ᄒᆞᆯ슈 잇겟ᄂᆞ냐 내 임의 너를위ᄒᆞ야 봉황의쌍을 온군이 구ᄒᆞ는즁 왕승상의 아ᄃᆞᆯ이잇ᄂᆞᆫ디 저질이 비범ᄒᆞ고 풍치 쥰슈ᄒᆞ며 문필이 유여ᄒᆞ니 진짓 너의비필이 맛당ᄒᆞ나 궁달의 셔로 틀님과 귀쳔의 셔로 갓지아니홈으로 감히 쳥혼치 못ᄒᆞ고 쥬야 한탄만ᄒᆞ얏더니 쳔만의외에 승상이 나를향ᄒᆞ야 혼인을쳥ᄒᆞ니 이것은 나의본심이오 너의인연이라 엇지 만힝이 아니겟ᄂᆞ냐 너ᄂᆞᆫ 아

못조록 잘 싱각ᄒᆞ야 나의 ᄒᆞᄂᆞᆫ말을 어긔지마라 어긔면 네신셰가 춤불것업슬거시오 어긔지 아니ᄒᆞ여야만 ᄲᅢ불거시 잇슬터이다 ᄯᅩᄂᆞᆫ 네가 리대붕과 뎡혼ᄒᆞᆫ말을 ᄒᆞ더라고 너의아주머니가 젼ᄒᆞᄂᆞᆫ말도 드럿다마ᄃᆞᆫ 그 부자가 임의 사오쳔리밧 젹쇼에 갓스니 변시 사지에간 사ᄅᆞᆷ이라 셜혹죽지아니ᄒᆞᆯ지라도 귀양 풀니기 망연ᄒᆞ니 그사ᄅᆞᆷ을 엇지바라고 빅년평셩을 헛되이 보내리오 셰월이 무졍ᄒᆞ야 홍안이 점々 쇠진ᄒᆞᄂᆞᆫ니라 빅만셜화로 루々 ᄀᆡ유ᄒᆞ거ᄂᆞᆯ 쇼져ㅣ 졍식ᄒᆞ고 ᄃᆡ답ᄒᆞ야ᄀᆞᆯᄋᆞ디 팔자 긔박ᄒᆞ야 부모를 일즉 리별ᄒᆞ고 혈々ᄒᆞᆫ 일ᄀᆡ단신이 혹불민ᄒᆞᆫ일이 잇셔도 아져씨씌셔 조흔말솜으로 인도ᄒᆞ심이 당연ᄒᆞ거ᄂᆞᆯ 왕희ᄀᆞᆺ흔 쇼인의게 아첨ᄒᆞ야이고단ᄒᆞᆫ 종질을 유인코져ᄒᆞ시니 그윽히 아져씨를 위ᄒᆞ야 붓그러ᄒᆞᄂᆞᆫ이다 녯말에 ᄒᆞ얏스되 충신은 두님군을 셤기지 아니ᄒᆞ고 렬녀ᄂᆞᆫ 두 지아비를 곳치지 아니ᄒᆞᆫ다 ᄒᆞ오니 아모리 이ᄀᆞᆺ치 고단ᄒᆞᆫ들 로류쟝화와ᄀᆞᆺ게 녁이

고 그런 셧브른말솜을 ᄒᆞ시ᄂᆞ앗가 도라가신 부모를 위ᄒᆞ야 이만콤 ᄃᆡ강 말솜 ᄒᆞ옵거나와 이다음에 ᄯᅩ다시 이러ᄒᆞᆫ말솜을 ᄒᆞ실진ᄃᆡ 영々 상종을 마시옵쇼셔 ᄒᆞ니 쟝쥰이 대단 무료ᄒᆞ야 묵々부답ᄒᆞ고 즉시 도라와 왕희 ᄃᆞ려 쇼져의 ᄒᆞ던말을 고ᄒᆞ니 왕희듯고 묵々다가 다시ᄀᆞᆯ으ᄃᆡ 무ᄉᆞᆷ방법 을 ᄊᆞ던지 아못조록 쥬션ᄒᆞ야 긔어코 혼인을 이루게ᄒᆞ라ᄒᆞ니 쟝쥰이 ᄃᆡ 답ᄒᆞ야ᄀᆞᆯ으ᄃᆡ 종질녀가 ᄆᆞ음이 텰셕ᄀᆞᆺᄒᆞᆫ지라 구변으로는 돌니기 파연어 렴ᄉᆞ온즉 비밀ᄒᆞᆫ 계교를 ᄲᅳᆯ밧게 다른슈가 업ᄉᆞ오니 아모커나 됴ᄒᆞᆫ날을 ᄐᆡᆨ일ᄒᆞ야 로복과 교자를 갓초워가지고 쟝미동근쳐에 가잇다가 밤을기다 려 부지불각에 겁탈ᄒᆞ야옴이 엇더ᄒᆞ신닛가 승상이 대희ᄒᆞ야 쟝쥰으로더 브러 언약을 졍ᄒᆞ고 모책을 궁구ᄒᆞ야 쟝ᄎᆞᆺ 힝ᄉᆞᄒᆞ려ᄒᆞ더라

각셜 이때 리익의부ᄌᆞ가 져쇼로 가다가 흉계를입어 슈즁에 ᄲᅥ러지니 날 ᄀᆡ업스ᄆᆡ 엇지 살기를 바라리요마는 ᄃᆞᆫ디알월이 조림ᄒᆞ샤 ᄋᆡ미ᄒᆞ고 불

샹ᄒᆞᆫ사ᄅᆞᆷ을 굽어 ᄉᆞᆲ히시ᄂᆞᆫ지라 시랑이 물에 ᄲᅥ러질ᄯᅢ에 난데업ᄂᆞᆫ 큰거북 한마리가 등으로 밧어타이고 한곳에 다ᄉᆞ러 물가에 나리게ᄒᆞ고 그거북 이 표연이 가더라 시랑이 졍신을차려 그ᄯᅡᆼ을 ᄉᆞᆲ혀보니 사ᄅᆞᆷ하나이 업 ᄂᆞᆫ조고마ᄒᆞᆫ 셔음이오 즁원의 원근을 짐작건ᄃᆡ 어러만리가 될듯ᄒᆞ더라 그 셔음에 잇ᄂᆞᆫ것슨 오직 과실나무만 무슈ᄒᆞᆫ지라 시랑이 부득이ᄒᆞ야 그 셔 음한가온ᄃᆡ로 드러가 칡덩쿨ᄀᆞᆺᄒᆞᆫ거슬 ᄭᅳᆫ허가지고 날글얼거 집을 원두막 ᄀᆞᆺ치 얽어 노코 ᄯᅥ러진 과실이나 졀노죽은 즘싱의 고기를 먹고 겨우목숨 을 보젼ᄒᆞ고 지내나 쳐ᄌᆞ싱각을 엇지 잠시나 금ᄒᆞᆯ슈잇스리요 부인과 ᄃᆡ봉 을 위ᄒᆞ야 쥬야눈물노 셰월을 보내더라 ᄯᅩ 대봉이 물에 ᄲᅥ러져 인ᄉᆞ를 모 ᄅᆞᆯ지음에 의외에 큰 ᄉᆞᆺ슥게ᄆᆞᆫᄒᆞᆫ 거북이와셔 등으로 대봉을 밧쳐가지고 ᄉᆞᆨ 속구치며 물결을조차 한량업시 허위고 가더니 한곳에 다ᄉᆞ러 륙ᄃᆡ에 나리게ᄒᆞ고 표연이 ᄯᅥ나가더라 대봉이 이상히녁여 졍신을 슈습ᄒᆞ야 ᄉᆞ

방으로 솖혀보며 졈々 나아가니 한곳에 비가 셧는디 그 비에 식엿스되
유디국디계라 ᄒᆞ얏는지라 디봉이 그졔야 유디국ᄯᅡ인줄은 겨우 알앗스나
어디로 향ᄒᆞᆯ바를 알슈잇스리요 단지 거름만밋고 가는디로 가는디 산은
쳡々 쳔봉이요 물은 골々이 폭포로다 갈ᄉᆞ록 졈々 별유셰계 완연ᄒᆞᆫ디
층암졀벽은 반공에 쇼셔잇고 창송과 록죽은 곳々이 울밀ᄒᆞ다 셕양산로
에 목동들은 슈인씨의 불내심을 원망ᄒᆞ고 슈풀속에 나는ᄉᆡ는 부르ᄂᆞ니
벗이로다 삼월츈풍 범나뷔는 츈흥을 못이긔여 화림속으로 나라들고 층
々쳡々 져봉우헤 흔구름이 덥혀잇다 양류잔 ᄭᅴᄯᅩ리는 손을보고 반기는
듯 동졍호 밝은달과 쇼샹강 가는비에 ᄯᅢ기럭이 논이는듯 은々ᄒᆞᆫ 풍경이
긱의슈심을 돕는도다 산수풍경 조컨마는 부모를 싱각ᄒᆞ니 거름이 졀노
더듸구나 이러ᄒᆞᆯ지음에 어디셔 나는 종쇼리가 긱의귀를 놀ᄂᆡ는도다 구
름을 헷치고 셕경의 됴흔길노 한곳을향ᄒᆞ야 완々이 드러가니 그곳은 빅

운동이라ᄒᆞ는 동리러라 한 로인이 빅발을 흣날니며 아관도복으로 청쟝
을흣허집고 관곡히나와 영졉ᄒᆞ야 반셕우에 잇는집으로 드러가거늘 ᄯᅡ라
긱실에 드러가 쥬긱의 례를맛치고 각기 ᄌᆞ리를 졍ᄒᆞᆫ후 로인이ᄀᆞᆯᄋᆞ디 귀
긱이 멀니 이 궁벽ᄒᆞᆫ곳에 왕림ᄒᆞ시되 쳔ᄒᆞᆫ나이 만ᄒᆞ와 각력이 부족ᄒᆞᆷ으
로 멀니나가 영졉지 못ᄒᆞ얏ᄉᆞ오니 허물치마시옵쇼셔 대봉이ᄀᆞᆯᄋᆞ디 로션
싱은 궁도의 힝인을디ᄒᆞ야 이디치 관디ᄒᆞ시ᄂᆞ잇가 동구밧게ᄭᅡ지 나오셔
々영졉ᄒᆞ심도 감ᄉᆞᄒᆞᄋᆞᆸ거늘 엇지ᄒᆞ야 허물ᄭᅡ지 말슴ᄒᆞ시ᄂᆞ잇가 로인이ᄀᆞᆯ
ᄋᆞ디 공ᄌᆞ는 모란동 리시랑의 귀공ᄌᆞ가 아니신잇가 오늘々 샹봉ᄒᆞᆷ은 실
노 하늘이 감동ᄒᆞᆷ이로쇼이다 원컨디 공ᄌᆞ는 로부와 한가지 동거ᄒᆞ여
이다 공ᄌᆞ— 놀ᄂᆡ여 이러나 두번 졀ᄒᆞ고 무러ᄀᆞᆯᄋᆞ디 쇼ᄌᆞ의 거쥬와 셩
명을 션싱이 엇지 아신잇가 ᄯᅩ동거ᄒᆞ실ᄎᆞ로 말슴을 밧ᄉᆞ오니 너무 감격
ᄒᆞ온즁 션싱ᄭᅴ 폐단을 ᄭᅵ치고 령경을 드레울가 도로혀 념녀로쇼이다 로

인이 뒤답ᄒᆞ야ᄀᆞᆯᄋᆞ뒤 로부는 하ᄂᆞ님셩쇼를 밧드는 직분이옵거니와 상공
께옵셔 즁왕에 지화오만원과 빅미 오쳔셕을 이셩쇼에 드리셧ᄉᆞ오니 의
지식지ᄒᆞᆯ거슬 엇지념녀ᄒᆞ시릿가 대봉아 잠간 우스며ᄀᆞᆯᄋᆞ뒤 쇼ᄌᆞ의 집
은 본릭 간난ᄒᆞᆫ지라 부쳔이 무슴슈로 이런졍셩을 밧쳐계시리잇가 로인
이ᄀᆞᆯᄋᆞ뒤 공ᄌᆞ는 년쳔ᄒᆞ신지라 엇지 젼일을 아실슈 잇스릿가ᄒᆞ고 동ᄌᆞ
를불너 져녁밥을 드리거ᄂᆞᆯ 먹어보매 원료와 향긔가 셰샹음식과 는 일졀
다르더라

각셜왕셕연이 길일을 당ᄒᆞ매 로복이며 교ᄌᆞ를 갓초워 쟝미동을 차자가
오경 깁흔밤을 기다려 쟝한림집으로 드러가 쇼져를 취코져ᄒᆞ더라 쇼져
ㅣ 이때 등촉을 밝히고 셔칙을 보더니 외당에셔 슉은々々ᄒᆞ는쇼릭 들니
거ᄂᆞᆯ 쇼져ㅣ ᄆᆞ음에 괴이ᄒᆞ고 일변으로 슈샹이녁여 시비 란영드러 닐너
ᄀᆞᆯᄋᆞ뒤 외당에셔 엇젼말쇼릭 들니々 네 가만이나가 그 동졍을 보고오라

ᄒᆞᆫ뒤 란영이 드러와 급히 엿ᄌᆞ오뒤 왕승상덕에셔 로복을 거ᄂᆞ리고 외당
에와셔 쥬져거리는이다 쇼져ㅣ 뒤경ᄒᆞ야ᄀᆞᆯᄋᆞ뒤 왕회 쳥혼ᄒᆞᄂᆞᆫ거슬 허락
지아니ᄒᆞ얏더니 이ᄀᆞᆺ치 급변을쑤며 나를 겁측고져ᄒᆞᆷ이 분명ᄒᆞ도다 장ᄎᆞ
어ᄃᆡ로갈고ᄒᆞ며 ᄌᆞ결코져ᄒᆞᆫ즉 란영이 엿ᄌᆞ오뒤 쇼져는 잠간 진졍ᄒᆞ옵쇼
셔 만일 ᄌᆞ쳐ᄒᆞ시면 부모의 분ᄒᆞ심과 낭군의 원슈를 뉘게 부탁ᄒᆞ오릿가
원컨ᄃᆡ 쇼져의 々복을 버ᄉᆞ시면 쇼비가입고 쇼져모양으로 침방에 안져
그 변을 감당ᄒᆞᆯ거시니 쇼져는 남복을 갓초고 급히 담을넘어 그 불측ᄒᆞᆫ
환란을 피ᄒᆞ시와 지즁ᄒᆞ신 싱명을보젼ᄒᆞ옵쇼셔 쇼져ㅣ ᄀᆞᆯᄋᆞ뒤 네 의ᄉᆞ
는 당연ᄒᆞ나 내몸이 규즁에셔 싱장ᄒᆞ여 문밧글 도모지 모르거니 담을넘
어 피신ᄒᆞᆫ다ᄒᆞᆫᄃᆞᆯ 어ᄃᆡ로 지향ᄒᆞ리오 찰하리 쥭음만 갓지못ᄒᆞ다ᄒᆞᆫ뒤 란
영이 다시 엿ᄌᆞ오뒤 련디가 광ᄃᆡᄒᆞ고 인명이 지련ᄒᆞ니 어ᄃᆡ로간들 보젼
치 못ᄒᆞ오리잇가 ᄉᆞ셰 가쟝급ᄒᆞ오니 쳥컨ᄃᆡ 쇼져는 쳔금ᄀᆞᆺᄒᆞᆫ 일신을

바리지 마옵쇼셔 쇼져ㅣ 울며골ᄋᆞ티 네가 그와ᄀᆞᆺ치 속인다ᄒᆞ드라도 그 힝식이 탄로ᄒᆞᆫ후는 필경 왕회손에 죽을거시니 그리말고 나와함ᄭᅴ 도망ᄒᆞᆷ이 가ᄒᆞ다ᄒᆞᆫ즉 란영이 ᄃᆡ답ᄒᆞ야골ᄋᆞ티 쇼져의 이말ᄉᆞᆷ은 쇼비를 앗기시는 말ᄉᆞᆷ이오니 일변 감ᄉᆞᄒᆞ오나 만일 ᄀᆞᆺ치 도망ᄒᆞ는 경우가되오면 왕회의 로복이 쇼져 침방에 아모도 업슴을보고 근쳐로 차ᄌᆞ단닐거시니 창졸간 어ᄃᆡ로가 은신ᄒᆞ오릿가 쇼비의 ᄉᆡᆼ각은 조곰도 마옵시고 급히 월장ᄒᆞ쇼셔 ᄒᆞ거늘 쇼져ㅣ 마지못ᄒᆞ여 남복을 부ᄃᆡ치고 란영의 손을잡고 리별ᄒᆞᆯᄉᆡ 우는쇼ᄅᆡ나면 왕회의 로복이 드러을가 념녀ᄒᆞ야 참아 곡셩을 내이지못ᄒᆞ고 눈물만흘니며 ᄂᆞᆺ겨골ᄋᆞ티 젼ᄉᆡᆼ에 무ᄉᆞᆷ죄를 지음으로 이ᄉᆡᆼ에와셔 조실부모ᄒᆞ고 ᄯᅩ 칠야 오경에 남ᄌᆞ의모양을 ᄭᅮᆷ여가지고 너를리별ᄒᆞ고 담을넘어 가게되ᄂᆞ뇨 이깁흔밤에 어ᄃᆡ로가며 언제나 다시샹봉ᄒᆞ리요ᄒᆞ며 슯피 우는형상은 참아 보기 어렵더라 란영은 쇼져의방으로

드러가고 쇼져는 담을넘어 좌우를 ᄉᆞᆸ혀보니 ᄉᆞ방이 고요ᄒᆞ고 밤빗이 침ᄉᆞᄒᆞᆯᄲᅮᆫ이라 산신이 길를차자 남으로 힝ᄒᆞ여가니라 란영이 쇼져의ᄉᆞᄉᆞ복을 닙고 쇼져의 모양으로 쳔연이 안졋더니 왕셕연이 시비로ᄒᆞ여곰 쇼져 침방에 드러와 잔ᄉᆞᄒᆞᆯ말노 빅반 ᄀᆡ유ᄒᆞ며 교ᄌᆞ를 드리여골ᄋᆞ티 쇼져는 련뎡훈연분을 바리지마시고 급히 교ᄌᆞ에 올으소셔 ᄒᆞ거늘 란영이 등촉을 밝히고 단졍히안져 시비를 ᄭᅮ지져골ᄋᆞ티 깁흔밤에 무ᄉᆞᆷ곡졀노 ᄉᆞ대부의 내당에 드러와 누를 히코져ᄒᆞ는다 엇지 집을바리고 교ᄌᆞ에 올으리오 찰하리 죽으리로다 ᄒᆞ고 슈건으로 목을ᄆᆡ며 무슈이 ᄭᅮ지즈니 시비등이 슈건을 ᄲᅦ앗고 붓드러 교ᄌᆞ에 실는지라 란영은 일ᄀᆡ단신이오 셕연의 시비는 무슈ᄒᆞ니 강약이부동에 엇지ᄒᆞᆯ고 ᄒᆞᆯ길업시 교ᄌᆞ에실녀 쟝안으로힝ᄒᆞᆯᄉᆡ 쟝미동을떠나 빅파졍 십리를 달녀가니 동방이 겨우 ᄇᆞᆰ는지라 져ᄌᆞ의 인민들이 다 ᄂᆞᆯᄋᆞ되 쟝한림의 쇼져ㅣ 왕승상의아ᄃᆞᆯ과 셩혼ᄒᆞ여 신힝ᄒᆞᆫ

다ᄒᆞ더라 란영이 승상부즁에 다々르니 큰잔치를 베플고 조졍빅관과 상하빈긱이 졔々히 모엿더라 란영이 교즈에나려 셕연의 좌셕에 드러가니 스ᄃᆡ부의 부인들이 구경ᄒᆞ고 셔로닐으ᄃᆡ 쟝한림ᄃᆡ 익황쇼져ㅣ 진실노 공즈의 짝이라ᄒᆞ며 즐기더라 란영이 문득 이러나 외당 빈긱좌즁에 나아가니 내외빈긱이 다 놀내여 동ᄒᆞ는지라 란영이 승상의압헤 다々러 좌우를 도라보며 글으ᄃᆡ 쇼비는 쟝한림ᄃᆡ 시비 란영으로셔 외람이 쇼져의몸이되여 승상을 잠시속엿ᄉᆞ오니 엇지알지 말으소셔ᄒᆞ고 용모를 단졍이ᄒᆞ여ᄀᆞ지고 소릭를놉혀 쥰졀이말ᄒᆞ되 왕희는 국록대신으로 명망이 조졍에 읏듬이오 권셰 턴하에 데일이라 ᄌᆞ식의 혼ᄉᆞ를 일울진ᄃᆡ 륙례를갓초고 대명턴디 밝은날에 삼싱연분을 매질거시어늘 무례ᄒᆞᆫ 힝실노 젹々ᄒᆞᆫ 깁흔밤에 ᄉᆞ대부의 내졍에 돌입ᄒᆞ야 규즁쳐ᄌᆞ를 겁탈코져 ᄒᆞᆷ은 무슴뜻이며 또 남의집 종을 교ᄌᆞ에 시러옴은 무슴곡졀인교 우리 쇼져ㅣ 욕을피

ᄒᆞ야 오경 깁흔밤에 어ᄃᆡ로 가셧는지 모르거니와 쇼져의ᄆᆞ음을 임의 아는비라 필경은 로즁원혼이 되엿스리니 엇지 통분치아니ᄒᆞ리오 인ᄒᆞ여 통곡ᄒᆞ니 좌즁의 모단사름은 다경아ᄒᆞ고 승상은황망이 놀내여 란영을위로ᄒᆞ야골으ᄃᆡ 쇼져는 옥갓흔몸을 츄비ᄒᆞᆫ 란영의게 비ᄒᆞ니 부당ᄒᆞ다ᄒᆞ고 시비를 명ᄒᆞ여 내당으로 드려보내고 쇼져의 힝식을 분변코져 쟝준을 쳥ᄒᆞ여 쇼져인가 과연 란영인가 보라ᄒᆞ니 쟝준이보ᄆᆡ 쇼져는 아니오 분명ᄒᆞᆫ 란영이라 그와갓치 실샹ᄃᆡ로 고ᄒᆞᆫ즉 승상이 대로ᄒᆞ여 란영을 죽이려ᄒᆞ거늘 빈긱들이 만류ᄒᆞ여골으ᄃᆡ 란영은 쳔고의 츙비일분이아니라 이약 승상의디위로 일긔 비ᄌᆞ를 죽임은 가위 칼을빠여 모긔를 ᄶᅵ름이오니 죄를 사ᄒᆞ야쥬심이 맛당ᄒᆞ오이다 ᄒᆞᄂᆞᆫ지라 왕희 도로혀 쟝준을 쳑망ᄒᆞ며 란영을 문밧그로 ᄯᅩᆺ차ᄂᆡ게ᄒᆞ니라

각셜 장쇼져ㅣ 그밤에 남복을입고 장미동을 ᄯᅥ난후 남으로 힝ᄒᆞ여 뎡쳐

업시 가다가 여러ᄂᆞᆯ만에 여람ᄯᅡ에 다々르니 긔운이 피곤ᄒᆞ고 슯흔ᄆᆞᄋᆞᆷ
이 더욱 소사나ᄂᆞᆫ도다 이에 일홈을곳처 희운이라ᄒᆞ고 촌々이 젼진ᄒᆞᆯ졔
한집에가 밥을쳥ᄒᆞ니 그집은 최어ᄉᆞ집인ᄃᆡ 어ᄉᆞᄂᆞᆫ 일즉 별셰ᄒᆞ고 그부
인소씨 다만 한 녀식을 다리고 지내되 형셰ᄂᆞᆫ 요부ᄒᆞᆫ지라 맛츰 희운을
보고 무러ᄀᆞᆯᄋᆞᄃᆡ 공ᄌᆞ의 힝석을본즉 졍령코 걸언은 아니니 어ᄃᆡ살앗스
며 셩명은 무어시라ᄒᆞ며 나흔 몃치뇨 공ᄌᆞㅣ ᄃᆡ답ᄒᆞ야ᄀᆞᆯᄋᆞᄃᆡ 소ᄌᆞᄂᆞᆫ 긔
쥬ᄯᅡ에 살앗스며 셩명은 쟝희운이오 나흔 십구셰로소이다 부인이 ᄯᅩ 무
러ᄀᆞᆯᄋᆞᄃᆡ 무모가 구존ᄒᆞ엿스며 엇지 이러ᄒᆞᆺ 다니ᄂᆞ뇨 공ᄌᆞㅣᄀᆞᆯᄋᆞᄃᆡ 부
모를 일즉 여희고 의탁ᄒᆞᆯ곳이업셔 ᄉᆞ히팔방으로 다니ᄂᆞ이다 부인이ᄀᆞᆯᄋᆞ
ᄃᆡ 공ᄌᆞ의 졍경이 심히가련ᄒᆞ도다 져와ᄀᆞᆺ치 단이지말고 내집에 머믈미
엇더ᄒᆞ뇨 공ᄌᆞㅣᄃᆡ답ᄒᆞ여ᄀᆞᆯᄋᆞᄃᆡ 부인ᄭᅦᄋᆞᆸ셔 처음보ᄂᆞᆫ 소ᄌᆞ를 불샹이녁이
시고 존문에 두고져ᄒᆞ시니 감격무지ᄒᆞ오나 소ᄌᆞㅣ 일즉 부모은덕으로 글

ᄯᅳᄂᆞᆫ 읽엇스나 다른일은 모르오니 존문에잇기 민망ᄒᆞ여이다 부인이ᄀᆞᆯᄋᆞ
ᄃᆡ 공ᄌᆞᄂᆞᆫ 아모념녀말고 동거ᄒᆞ쟈ᄒᆞ거날 공ᄌᆞㅣ 지비ᄒᆞ고 무수이 치사
ᄒᆞ며 그리ᄒᆞ오리다ᄒᆞᆫ즉 부인이 초당한간을 ᄉᆡ로뎡ᄒᆞ여 졍쇄이 치우고
셔칙을 내여주며ᄀᆞᆯᄋᆞᄃᆡ 부ᄃᆡ 학업을 힘써 공명을 이루게ᄒᆞ라 공ᄌᆞㅣ 밧
아보니 셩경현젼과 숀오의병셔라 쥬야 슉독ᄒᆞ여 공부가 날노 진취ᄒᆞ니
소씨부인이 각별이 사랑ᄒᆞ여 긔츌갓치 ᄋᆡ즁ᄒᆞ더라 셰월이 물갓치 흘너
어ᄂᆡ덧 삼년을지ᄂᆡ니 희운의 연광이 이십셰라 지조ᄂᆞᆫ 풍운을부리고 힘
은 ᄐᆡ산을 ᄭᅵ고 북히를 ᄯᅱ긴듯ᄒᆞ더라
각셜 대봉이 유대국 빅운동셩소에잇셔 시셔빅가와 륙도삼략을 달통ᄒᆞ니
셰상에 모를거시 업더라 셰월이 무졍ᄒᆞ여 공ᄌᆞ의나히 이십일셰라 지조
ᄂᆞᆫ 졔갈공명을 압두ᄒᆞ고 힘은 오ᄌᆞ셔의 십빅나될너라 한ᄂᆞᆯ은 슯흔회포
를 금치못ᄒᆞ여 셔칙을 더지고 노ᄅᆡ 한곡됴를지어 강ᄀᆡᄒᆞᆫ 회포를 풀니라

ᄒᆞ고 인ᄒᆞ야 부르니 셩음이 웅쟝ᄒᆞ여 산쳔이 요동ᄒᆞ며 벽공을 응ᄒᆞ니 그노릭에 ᄒᆞ엿스되 두견됴는 무삼일노 불여귀만 슙히울고 셩산에 셕양을 보ᄂᆡ느냐 북히의 대붕시는 남히로 도라들고 양곡의 쐬쇼리는 교목에 웅거ᄒᆞᆫ다 봉황시야 별유계계 마다ᄒᆞ고 오동남게 집을지여 열매로 츙복ᄒᆞᆷ이 어인일이며 잉무야 너는 교목이 허다ᄒᆞᆫᄃᆡ 유곡에 ᄌᆞ미붓쳐 ᄯᅥ날줄을 모르니 지각이 젼혀 미흡ᄒᆞ도다 만학쳔봉 지져귀는 오작시야 즐거운 곳이 어ᄃᆡ업셔 나라가지 아니ᄒᆞ고 셜즁에 쥬려죽기 무삼일가 두어라 풀과 나무는 깁흔산 흐르는물은 바다가온ᄃᆡ 시즘싱은 즐거운곳 의례샹ᄉᆞ이아닌가 로션싱이 셕벽에 의지ᄒᆞ야 안졋다가 공ᄌᆞ의 노릭를 익이듯고 말은노릭 한곡됴로 니어 화답ᄒᆞ니 쳥아ᄒᆞ기 금옥의소릭라 그곡됴에 ᄒᆞ엿스되 쳔산만산에 빅셜이 비々터니 홀연 동풍에 두견시 슙히우니 삼츈가졀 이아닌가 공작우야 곱기는 곱다마는 봉황ᄎᆞ기 어려워라 쐬쇼리야

양류지샹 마다ᄒᆞ고 유곡에 은신ᄒᆞᆷ이 무슴일가 조흔시졀 머럿스니 아직 잠々 직힘이오 만학에 오작들은 즐거운곳을 어이몰나 셜즁에 어러죽나 싱각건ᄃᆡ 남의호강 마다ᄒᆞ고 본식을 직힘이라 동원에 두견이며 가지에 쐬쇼리며 고봉에 오작들 네드러라 한번날고 두번우니 인간인싱 서울셰라 물이밀면 ᄇᆡ가ᄯᅳᆫ고 구름씨면 비가온다 총々ᄒᆞ기 측량업스나 셰샹만물 ᄯᅢ가잇다 ᄒᆞ더라 공ᄌᆞ 그 화답ᄒᆞᄂᆞᆫ 노릭를듯고 즉시 사례ᄒᆞ여골ᄋᆞ ᄃᆡ 로션싱쎄셔 미거ᄒᆞᆫ 소싱을 ᄋᆡ휼ᄒᆞ샤 노릭로 ᄀᆡ유ᄒᆞ여 화답ᄒᆞ시니 너무감격ᄒᆞ도소이다 소ᄌᆞ 삼년을 산즁에 무ᄉᆞ이 두류ᄒᆞ오나 부쳔 계신곳을 아지못ᄒᆞ고 ᄯᅩ 모씨의 존몰이 아쥬 격졀ᄒᆞ오니 엇지 한심치아니ᄒᆞ릿가 답々ᄒᆞᆫ 회포가 시암솟듯ᄒᆞ와 셰샹에 나아가 부모의 사싱존몰을 알고져ᄒᆞ엿더니 로션싱의 노래화답ᄒᆞ심을 듯ᄉᆞ온즉 아쥭 셰샹에 나가지말나 ᄒᆞ심이니 원컨ᄃᆡ 부쳔의 사싱과 모씨의 안부를 가라쳐 알게ᄒᆞ소셔 로인

이 ᄃᆡ답ᄒᆞ되 공ᄌᆞ의 알고져ᄒᆞᄂᆞᆫ바를 ᄂᆡᆫ들 엇지알수잇스리오 그러나 두어셰월을 더보내면 ᄯᆡ를엇어 공명을 일우고 부모를 샹봉ᄒᆞ리라ᄒᆞᆫᄃᆡ 공ᄌᆞㅣ 지비ᄒᆞ고 다시 셔칙을 ᄃᆡᄒᆞ여 학업을 힘쓰더라

각셜 이ᄯᆡᄂᆞᆫ 츈삼월이라 황뎨 하교ᄒᆞ여ᄀᆞᆯᄋᆞᄃᆡ 왕뎐하ᄒᆞ너ᄂᆞᆫ 쥬ᄉᆞ나라만ᄒᆞ너업고 패제후ᄒᆞ너ᄂᆞᆫ 제ᄉᆞ나라만ᄒᆞ너 업다ᄒᆞ너 이ᄂᆞᆫ다 강ᄃᆡ공과 관이오의ᄊᆡ로인ᄒᆞ야 그러ᄒᆞᆷ이니 어진신하를 쓰면 조졍이 흥ᄒᆞ여 뎐하를 슌히다ᄉᆞ리ᄂᆞ니라 광ᄃᆡᄒᆞᆫ 뎐하에 현인과 군ᄌᆞㅣ 업지아닐지나 짐이 구중 궁궐에 깁히잇셔 엇지 알앗스리오 장ᄎᆞᆺ 만과를 보이리라 ᄒᆞ시고 과거령을 나리시니 ᄉᆞ방의 문쟝지ᄉᆞ들이 과거소문을듯고 구름ᄀᆞᆺ치 오르더라 이ᄯᆡ 쟝희운이 여람에잇셔 학업을 힘쓰더니 과거보이ᄂᆞᆫ 령을듯고 소부인ᄭᅴ 고ᄒᆞ야ᄀᆞᆯᄋᆞᄃᆡ 대평만과를 보이신다ᄒᆞ니 소ᄌᆞ도 참예ᄒᆞ여 졍권코져 ᄒᆞᄂᆞ이다ᄒᆞ니 부인이 허락ᄒᆞ시ᄂᆞᆫ지라 인ᄒᆞ여 힝쟝을ᄎᆞ려 길을 ᄯᅥᄂᆞᆯ시 부인이

공ᄌᆞ의 손을잡고ᄀᆞᆯᄋᆞᄃᆡ 나ᄂᆞᆫ 박복ᄒᆞ여 일즉 가군을 여희며 ᄯᅩ 산아히ᄌᆞ식은 두지못ᄒᆞ고 다만 한 녀아를 두엇ᄂᆞᆫᄃᆡ ᄃᆡ임의 덕힝이며 셔시의 미식은 업스나 가히 견다여 공ᄌᆞ를 밧들만ᄒᆞ되 공ᄌᆞ의 의향을 모르ᄂᆞᆫ지라 유의만 간졀ᄒᆞᆯᄲᅮᆫ이더니 이제 황셩에 가시니 쳔리원졍에 무ᄉᆞ이 득달ᄒᆞ여 졍셩으로 입쟝ᄒᆞ고 슈히 도라와 나의 바라ᄂᆞᆫ바 깁흔뜻을 져바리지말나ᄒᆞ거ᄂᆞᆯ 공ᄌᆞㅣ ᄃᆡ답ᄒᆞ야ᄀᆞᆯᄋᆞᄃᆡ 소ᄌᆞㅣ 일즉 부모를 여희고 혈々단신이 의탁ᄒᆞᆯ곳이업셔 ᄉᆞ히로 단이다가 맛참 부인의 은혜를입ᄉᆞ와 존문에 의탁ᄒᆞ엿ᄉᆞ오니 부인은 곳 쇼ᄌᆞ의 부모와 다르심이 업ᄉᆞ시도소이다 ᄯᅩᄂᆞᆫ 소ᄌᆞ갓흔 잔명을은혜로써 구원ᄒᆞ시고 겸ᄒᆞ여 쳔금갓흐신 귀쇼져로써 허락ᄒᆞ시샤 슬하에 두고져ᄒᆞ시오니 하졍에 더욱 황공감사ᄒᆞ여이다ᄒᆞᆫ후 슈히 도라와 뫼심을 고ᄒᆞ고 즉시 하직ᄒᆞ니라 길을 ᄯᅥᄂᆞᆫ지 여러날만에 긔주ᄯᅡ에 다々르니 녯날 산쳔이 의구ᄒᆞ다 녯일을 ᄉᆡᆼ각ᄒᆞ고 눈물을

금치못ᄒᆞ며 본집을 가마니 드러가보니 디셰ᄂᆞᆫ 네와갓고 송죽은 울ᄉᆞᄉᆞᄒᆞ여 절ᄀᆡ를 곳치지아니ᄒᆞ엿도다 ᄉᆞ면이 젹ᄉᆞᄒᆞ고 사ᄅᆞᆷ하나 업ᄂᆞᆫ곳에 연당시내가에ᄂᆞᆫ 빅화가 만발ᄒᆞ고 셕연을 피ᄒᆞᄂᆞᆫ 쟝원은 풍우에 퇴락ᄒᆞ야 반이나 문허지고 거쳐ᄒᆞ던 침방은 시즘싱에 자최뿐이라 이형편을 보고 ᄆᆞ음이 엇지 온젼ᄒᆞᆯ수 잇스리오 이ᄯᅢ 란영이 홀노 샹젼의 구ᄃᆡᆨ을 직히고 잇ᄂᆞᆫ지라 맛참 소져를보고 혹 힝인인가 의아ᄒᆞ던ᄎᆞ 쇼져ㅣ 눈물을흘니며 란영의 묵을안고 통곡ᄒᆞ야ᄀᆞᆯ으ᄃᆡ 란영아 그ᄉᆞ이 무ᄉᆞᄒᆞ엿스며 너ᄂᆞᆫ나를 아ᄂᆞᆫ냐 모르ᄂᆞᆫ냐 자셰이보라 녯날보던 얼골이며 녯날듯던 음셩이아니냐ᄒᆞ고 젼지도지ᄒᆞ며 긔졀ᄒᆞ거ᄂᆞᆯ 란영이 그제야 음셩을 녁여듯고 얼골을 ᄉᆞᆷ혀보니 분명ᄒᆞᆫ 쇼져라 싱시인가 ᄭᅮᆷ인가 셔닷지못ᄒᆞ며 쇼져의 손을잡고 통곡ᄒᆞ야ᄀᆞᆯ으ᄃᆡ 현슉ᄒᆞ신 우리쇼져여 살아뉵신이 오신닛가 죽어 령혼이 오신닛가 하ᄂᆞᆯ노 오신닛가 ᄯᅡ으로 오신닛가 텬방디방 엇지

ᄒᆞᆯ쥴모르다가 눈물을 굿치고 쇼져를안고 위로ᄒᆞ여ᄀᆞᆯ으ᄃᆡ 진졍ᄒᆞ소셔 한번 작별ᄒᆞᆫ후 소식이 아득ᄒᆞ여 쥬샤야탁 간졀터니 오ᄂᆞᆯ이 어늬ᄂᆞᆯ인지 의외샹봉 만힝이오니 그만 진졍ᄒᆞ소셔 쇼져ㅣ ᄆᆞ음을 억졔ᄒᆞ고 란영드려 ᄂᆞᆯ너ᄀᆞᆯ으ᄃᆡ 네가 왕희손에 죽은가 ᄒᆞ엿더니 오ᄂᆞᆯ々 다시보니 하ᄂᆞᆯ이 엇지무심타ᄒᆞ리오 젼후 지난바일을 말ᄒᆞ라 란영이 눈물을 거두고 고ᄒᆞᄂᆞᆫ ᄃᆡ 쇼져의 ᄉᆞ복을 가라입고 쇼져침방에 드러가 안졋슬ᄉᆡᆨ 셕연의 시비가 드러와 ᄒᆞ던말이며 등촉을 ᄇᆞᆰ히고 쳔연히 안져 ᄭᅮ짓던말이며 자결코져 ᄒᆞ다가 강약이부동ᄒᆞ여 교ᄌᆞ에 실니든말이며 빅파졍에 다ᄉᆞ르니 로소인 민들이 모여 ᄒᆞ던말이며 왕희집에 다ᄉᆞ르니 쥬육을 비셜ᄒᆞ고 조졍빅관과 샹하빈긱 모혓던말이며 셕연의방에드러가니 ᄉᆞ대부 부인들이 느러안져 칭찬ᄒᆞ던말이며 밧그로나가 만좌빈긱즁에 왕희를ᄃᆡᄒᆞ여 ᄭᅮ짓던말이며 왕희의 분내여 죽이려ᄒᆞ던말이며 좌즁빈긱이 만류ᄒᆞ던말과 무ᄉᆞ이 도

라오던스연을 낫々치 고ᄒᆞ거늘 쇼져ㅣ 또ᄒᆞᆫ 월쟝ᄒᆞ여 겨우 길을차자 남으로힝ᄒᆞ던말과 초힝로숙ᄒᆞ여 여러ᄂᆞᆯ만에 여람짜에 다々러 조셕을빌다가 최어스집에 의탁ᄒᆞ던말이며 과거소식듯고 가ᄂᆞᆫ말을 일쟝셜화ᄒᆞ며 다시닐너ᄀᆞᆯ으ᄃᆡ 내 이곳에 머믈너 함긔 셰월을 보ᄂᆡ고져ᄒᆞ나 나의 경영과 ᄀᆞᆺ치 쟝차 룡문에올나 황쳔에 도라가신 부친의원을 씻고 졀도에가신 낭군의 원수를 갑고저홈으로 졍을니루지못ᄒᆞ노니 너ᄂᆞᆫ 부ᄃᆡ나의종젹을 루셜치말고 집을 잘직히고잇스면 도라와 차질때가 잇스리라ᄒᆞ고 란영을 리별ᄒᆞ니 그런々ᄒᆞᆫ 정례를 엇지 형언ᄒᆞ리오 이ᄂᆞᆯ 쟝미동을떠나 황셩에 이르니 이때ᄂᆞᆫ 하스월이라 황뎨 태극뎐에 친림ᄒᆞ시고 일각로이하 만조졔신이 옹위ᄒᆞ엿ᄂᆞᆫᄃᆡ 문장졔스들이 구름ᄀᆞᆺ치 모엿더라 쟝공즈ㅣ 입쟝ᄒᆞ여 글졔를 바라보니 어진신하를 구ᄒᆞ여 뎐하를 평졍ᄒᆞᆯ비라 ᄒᆞ엿거ᄂᆞᆯ 공즈ㅣ 일필휘지ᄒᆞ여 일쳔ᄒᆞ니 뎐즈ㅣ 보시ᄆᆡ 귀々관쥬요 즈々 비졈이라

크게 칭도ᄒᆞ시며 글으샤ᄃᆡ 이러ᄒᆞᆫ 저됴ᄂᆞᆫ 진실노 듬으도다 언스ㅣ 쾌활ᄒᆞ고 츙효ㅣ 겸비ᄒ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시고 봉ᄂᆡ를 떠이시니 여람 쟝희운이오 부명은 희라 ᄒᆞ엿더라 례관이 ᄃᆡ하에 나려 호명ᄒᆞ니 공즈ㅣ 듯고 ᄲᆞᆯ니드러가 ᄯᅡ에 업다린ᄃᆡ 황뎨 잇그러 보시고 어쥬를 쥬시며 친히 손을잡으시고 글으샤ᄃᆡ 젼한림 쟝희ᄂᆞᆫ 쥬셕ᄀᆞᆺ흔 신하로 불힝이 일즉죽으매 한림원이 뷔엿더니 이제쟝원급뎨 희운이 쟝희의 아ᄃᆞᆯ이라ᄒᆞ니 엇지반갑지 아니리오 ᄒᆞ시고 한림학스를 제수ᄒᆞ시거ᄂᆞᆯ 희운이 숙비ᄒᆞ고 한림원에 쳐ᄒᆞ여 뎐은을 쵹슈ᄒᆞ고 궐하에 나려 머리에 어스화ᄭᅩᆺ고 몸에 청삼입고 손에 빅학션들고 쳔리토산마를타고 쟝안대도샹에 완々이 나아오니 홀긔ᄂᆞᆫ 반공에 빗최이고 금의화동은 쌍々이 옥저를불고 여러시비ᄂᆞᆫ 젼후에 옹위ᄒᆞ니 구경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뉘아니 칭찬ᄒᆞ리오 슈일 유과ᄒᆞᆫ후 슈유를 엇어 고향긔쥬로 나려와 사당에 비례ᄒᆞ고 산쇼에 소분ᄒᆞᆯ제 뉘라셔 쇼져

인줄 알니요 란영은 홀노 즐겨우음을 먹음고 츔츄며 희々ᄒᆞ더라 이젹에 좌승상 왕희 황샹씌 간ᄒᆞ야ᄀᆞᆯᄋᆞ디 젼한림 장희는 무죠ᄒᆞ온디 이제 희운이 쟝원급데ᄒᆞ여 쟝희의 아ᄃᆞᆯ이라 칭ᄒᆞ고 한림벼슬을 더ᄒᆞ얏스오니 복원폐하는 희운을 국문ᄒᆞ시와 긔군망샹ᄒᆞᆫ 죄를 다사려 후일을 증계ᄒᆞ소셔 황뎨 로ᄒᆞ여ᄀᆞᆯᄋᆞ샤ᄃᆡ 경은 엇지 남의집일을 조셰이알고 남을 히코져 ᄒᆞᄂᆞᆫ다 왕희 황송ᄒᆞ여 한쵸첨비ᄒᆞ더라

각셜 한림이 여러날만에 여람에 다々르니 소부인이 한림 도라옴을 보고 치하ᄒᆞ여ᄀᆞᆯᄋᆞ디 한림이 룡문에올나 벼슬이 한림에올나 명망이 조야에 쟈々ᄒᆞ신즁 미쳔ᄒᆞᆫ집을 잇지아니ᄒᆞ고 쳔리원졍에 나려오시니 엇지 즐겁지아니리오 한림이 ᄃᆡ답ᄒᆞ야ᄀᆞᆯᄋᆞ디 소자ㅣ 죤문에 의지ᄒᆞ와 지금々지 보젼ᄒᆞ엿ᄉᆞ오니 희운의목숨이 엇지 희운의 목숨이라ᄒᆞ오릿가 또 룡문에 올나 벼슬에 나아감도 부인의 은덕이로소이다ᄒᆞᆫᄃᆡ 부인이 못ᄂᆡ 칭찬ᄒᆞ

고 ᄉᆞ랑ᄒᆞ시더라 연ᄒᆞ여 녀아의 혼ᄉᆞ를 이르고져ᄒᆞ더니 황뎨 한림을 ᄉᆞ랑ᄒᆞ샤 명ᄒᆞ야 부르시거ᄂᆞᆯ 한림이 부인씌 하직ᄒᆞ여ᄀᆞᆯᄋᆞ디 텬ᄌᆞ의 칙명이 지즁ᄒᆞ시기로 올나가오니 과렴마옵소셔 ᄒᆞ고 즉시 상경ᄒᆞ여 계하에 업다린ᄃᆡ 황뎨ᄀᆞᆯᄋᆞ샤ᄃᆡ 경은 짐의 ᄎᆞᆼ의ᄒᆞᆫ 신하이니 겻헤잇셔 짐의 허물을 밝히라ᄒᆞ시니 한림이 부복ᄒᆞ다 황뎨 한림의 벼슬을 도々와 이부시랑 겸 간의ᄃᆡ우를 ᄒᆞ이시니 명망이 진동ᄒᆞ더라 이씨는 동십월이라 황뎨 미앙궁에 올나 ᄃᆡ평ᄒᆞᆫ 잔치를 비셜ᄒᆞ고 모든신하를 모아 나라일을 의론ᄒᆞ시며 깃거ᄒᆞ시더니 맛참 하람절도ᄉᆞㅣ 쟝계ᄒᆞ얏거늘 ᄀᆡ탁ᄒᆞ시니 ᄒᆞ얏스되 남션우ㅣ 강셩ᄒᆞ여 ᄃᆞᆯ리 오십만과 명장쳔 여원을 거나리고 즁원을 범코져ᄒᆞ야 남평관을 쳐 항복밧고 바로 셩즁을 범ᄒᆞ얏ᄉᆞ오니 복원폐하는 륙군을 보ᄂᆡ여 도젹을막으소셔 ᄒᆞ얏더라 황뎨 보시고 크게 놀내샤 도젹방어ᄒᆞᆯ 획칙을 의론ᄒᆞ시더니 번셩ᄃᆡ수 셜만슌이 ᄯᅩᄒᆞᆫ 쟝계ᄒᆞ얏스되

남션우ㅣ 강셩ᄒᆞ야 강병 오십만과 명장 츙달의무리로 남평관을 쳐 셔라
리교 셩쥬을 항복밧고 곳 황셩으로 향ᄒᆞ얌는ᄃᆡ 그 긔셰를 좀처로 당ᄒᆞ
기 어렵ᄉᆞ오니 복원폐하는 급히 졍예ᄒᆞᆫ 군병을 다수이 조발ᄒᆞ야 젹병을
막으소셔 ᄒᆞ얏거늘 황뎨 더욱 놀나시샤 모든신하를 도라보아 ᄀᆞᆯ으샤ᄃᆡ
남션우 본ᄃᆡ 강셩ᄒᆞ고 츙달과 거란ᄃᆡ는 범ᄀᆞᆺ흔 장수라 뉘 능히 두 장수
를 당ᄒᆞ며 젹병을 파ᄒᆞ고 도라와 짐의근심을 덜니오 황뎨 본ᄃᆡ 한림희
운을 ᄉᆞ랑ᄒᆞ시매 조졍이 다 ᄉᆡ긔ᄒᆞ여 희운을 쥭을ᄯᅡ에 보내고져 ᄒᆞ더라
이ᄯᅢ 좌승상 문현신과 병부샹셔 진ᄃᆡ영이 황뎨ᄭᅴ 엿자오되 이부시랑 쟝
희운이비록 년쳔ᄒᆞ오나 문무 구비ᄒᆞ고 츙의 겸젼ᄒᆞ오니 복원폐하는 급
히 보내샤 도젹을 막으소셔 ᄒᆞ거늘 황뎨ᄀᆞᆯ으샤ᄃᆡ 희운의 지략은 짐이알
거니와 다만 년쇼ᄒᆞ니 엇지 젼쟝에 보내며 또 엇지 짐의곁흘 ᄯᅥ나게ᄒᆞ
리오ᄒᆞ고 차마 어려워ᄒᆞ시거늘 희운이 업ᄃᆞ려 알외여ᄀᆞᆯ으ᄃᆡ 신이 ᄐᆞᆫ힝

으로 벼슬이 시랑에 쳐ᄒᆞ엿ᄉᆞ오니 국은이 망극ᄒᆞ온지라 이ᄯᅢ를 당ᄒᆞ와
한번 젼쟝에나가 반젹션우를 살오잡고 젹장 츙달 거란ᄃᆡ를 버혀 폐하의
은덕을 만분의일이라도 갑흘가 ᄒᆞᄂᆞ이다 황뎨 대희ᄒᆞ여 즉시 이부시랑
쟝희운으로 대원수를 봉ᄒᆞ시고 절월과 대쟝 인신과 참ᄉᆞ금을 쥬시고 군
병 십만을 조발ᄒᆞ여 쥬시며 ᄀᆞᆯ으샤ᄃᆡ 만리젼쟝에가셔 남을 경젹지말고
힘을다ᄒᆞ여 반젹을 버혀 공을이루게ᄒᆞ라 ᄒᆞ시거늘 원수ㅣ ᄐᆞᆫ은을 슉샤
ᄒᆞ고 군병을 거ᄂᆞ리고 남셩문밧그로 나올ᄉᆡ 머리에 텰갑투구를쓰고 몸
에 룡문젼포갑을입고 허리에 황금인신을차고 왼손에 빅모황월을잡고 올
흔손에 칠쳑참ᄉᆞ금을 잡고 쳔리룡총마를 타고 완연이 나아오니 압헤는
션봉쟝 한웅이오 지차 여러장수는 차례로 군ᄉᆞ의 항오를 차려나오는ᄃᆡ
긔치창금은 일월을 희롱ᄒᆞ고 고각함셩은 ᄐᆞᆫ디 친동ᄒᆞ더라 군ᄉᆞ를 지촉
ᄒᆞ여 여러ᄂᆞᆯ만에 셩쥬지경에 다ᄃᆞ르니 션우ㅣ 거긔 웅거ᄒᆞ야 군사를 쉬

이더라 원슈ㅣ 진을 굿게쳐 군사를 쉬이게ᄒᆞ고 모든 장수를불너 약속을 정ᄒᆞ니라 잇흔날 평명에 진문을 크게열고 ᄊᆞ홈을 쳥ᄒᆞ니 션우ㅣ 또ᄒᆞᆫ 디답ᄒᆞ고 츙달노ᄒᆞ여곰 디젹ᄒᆞ라 ᄒᆞ거ᄂᆞᆯ 원슈ㅣ 한웅을 지촉ᄒᆞ여 승부를 결단ᄒᆞ라ᄒᆞ니 웅이 머리에 쌍봉투구를쓰고 몸에 운갑을입고 왼손에 슈긔오 올흔손에 장챵이라 빅룡마를타고 진밧게나셔 웨여글ᄋᆞ딕 도젹츙달은 쌜니 나의챵을 밧으라ᄒᆞᆫ딕 츙달이 또ᄒᆞᆫ 진문에 나서니 왼손에 텰퇴오 올흔손에 텰궁이라 응ᄒᆞ야 크게 ᄭᅮ짓거ᄂᆞᆯ 한웅이 소릭를놉혀 ᄭᅮ지져글ᄋᆞ딕 범모르는 긔ᄂᆞᆫ 깁흔곳으로 ᄋᆞᆫ신이나ᄒᆞ여 네 나를보니 무셥지도 아니ᄒᆞ냐 네명을 스스로 저촉ᄒᆞ니 가긍타ᄒᆞᆫ딕 츙달이 분을 이긔지못ᄒᆞ여 필마단창으로 황진즁에 드러와 좌우츙돌ᄒᆞ며 불과 일합에 한웅의 홀긔를 아서들고 웨여글ᄋᆞ딕 네 머리를 버힐거시로딕 모긔보고 칼을 쎄ᄂᆞᆫ겨이라 그져오기 셥々ᄒᆞ여 홀긔만 아서왓스니 너ᄂᆞᆫ 두렵지도 아니ᄒᆞ

냐 ᄒᆞ거ᄂᆞᆯ 한웅이 분을 참지못ᄒᆞ여 츙달의 뒤를쫏츠며 글ᄋᆞ딕 너 홀긔를 쥬고 네머리를 박구고져ᄒᆞ노니 가지말고 너칼을 밧으라ᄒᆞ며 창으로 츙달을치니 츙달이 몸을 속구쳐 한웅의챵을 아서들고글ᄋᆞ딕 한웅아 악가너 ᄒᆞᄂᆞᆫ말이 네 홀긔를 쥬고 나의머리를 밧군다ᄒᆞ더니 이제 또 챵을 쥬고 무엇을 앗코져ᄒᆞᄂᆞ냐 회사홀거시 업기로 텰궁에 왜젼을 실어보내니 가삼으로 밧아가지고 너의 진즁에 도라가 연유를 고파ᄒᆞ고 또 너의상장군을 보내여 텰퇴를 가져가라ᄒᆞ며 활을 당긔여쏘니 한웅의 가슴이 마져 말아릭에 떠러지ᄂᆞᆫ지라 츙달이 즉시 한웅의 머리를 쎄여들고 본진으로 도라와 의긔 양々ᄒᆞ더라 원슈ㅣ 진즁에서 츙달의 몸쓰ᄂᆞᆫ법과 창쓰ᄂᆞᆫ법을 바라보니 진짓 명장이오 또 한웅이 쥭엇스니 그남은 장슈ㅣ 무수ᄒᆞ나 지목홀지업서 유예ᄒᆞ며글ᄋᆞ딕 뉘 능히 츙달의 뎍수되여 한웅의 원슈를갑고 나의분을 씨스리요 말이 맛치지못ᄒᆞ야 한장수ㅣ 머리에 빅근

투구를쓰고 몸에 쳔군갑옷을 입고 진문에 나서 원슈씌 엿자오되 션봉장 한웅이 쇼장의 형이옵더니 시운이 불힝ᄒᆞ와 젹장의손에 죽엇사오니 엇지 통분치 아니릿가 소쟝이 비록 지조 업사오나 젹진에 드러가 츙달의 머리를 버혀 망형의 원슈를 갑고져ᄒᆞᄂᆞ이다 ᄒᆞ거늘 쇼혀보니 현무쟝군 한총일너라 원슈ㅣ 디희ᄒᆞ여 즉시 출젼으로 허락ᄒᆞ니 한총이 진압헤 나셔々 츙달노더브러 승부를 결단홀시 십여합에 지나미 젹쟝의 털퇴ᄂᆞᆫ 더욱 승々ᄒᆞ고 한총의칼은 졈々시진ᄒᆞ니 원슈ㅣ 바라보다가 분긔를이긔지못ᄒᆞ여 룡총마를 저촉홀시 철셩투구ᄂᆞᆫ 달빗출 희롱ᄒᆞ고 룡운갑은 구름을 헷치ᄂᆞᆫ듯 왼손에 철쳑쟝금을들고 올흔손에 쳔근철퇴를들고 봉의눈을 부릅쓰고 우뢰ᄀᆞᆺ흔소릭를 벽력ᄀᆞᆺ치 지르며 크게웨여ᄀᆞᆯ오ᄃᆡ 반젹션우야 한갓 강포만밋고 하ᄂᆞᆯ을 거스려 츙원을 침범ᄒᆞ니 엇지 하ᄂᆞᆯ이 두렵지아니ᄒᆞ냐 나의창금과 털퇴ᄂᆞᆫ 스졍이 업스니 네 목숨을 익기거든 쌀니

나와 항복ᄒᆞ라ᄒᆞᆫ디 츙달이 한총을 치려다가 원슈의 외이ᄂᆞᆫ 소릭를 듯고 쇰혀보니 털퇴가 웅쟝ᄒᆞ야 져의가진바 털퇴에 십비나 되더라 츙달이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치쳐 달녀들며 웨여ᄀᆞᆯ오ᄃᆡ 명장 희운은 나의말을 드르라 하ᄂᆞᆯ이 우리대왕을 니이시고 또 날갓흔 영웅을 내이샤 무도ᄒᆞᆫ 쥬원을 쳐 텬하를 평졍ᄒᆞ교 송덕을 만ᄃᆡ에 빗내고져ᄒᆞᆯ이어ᄂᆞᆯ 텬시를 모르고 한갓 쟝담으로 항거ᄒᆞᄂᆞᆫ다 또 너를보니 강보의 어린아희라 어미젓이나먹을거시어ᄂᆞᆯ 무단이 젼쟝에나와 목숨을 익기지아니ᄒᆞ니 엇지 불샹치아니ᄒᆞ리오 너ᄂᆞᆫ 나의 넘녀ᄒᆞᄂᆞᆫ마음을 져바리지말고 쌀니 항복ᄒᆞ야 잔명을 보젼ᄒᆞ라ᄒᆞᆫ디 원슈ㅣ 크게 우서ᄀᆞᆯ오ᄃᆡ 네말이 그러ᄒᆞᆯ진ᄃᆡᆫ 나의칼을 밧아보라 ᄒᆞ고 달녀드러 일합에 원슈의 참스금이 번듯ᄒᆞ며 츙달의 머리를쳐니 츙달이 털퇴를드러 칼을 디젹ᄒᆞ며ᄀᆞᆯ오ᄃᆡ 칼쓰ᄂᆞᆫ법을보니 내곳아니면 마질번ᄒᆞ얏도다 ᄒᆞ고 봄바람에 나뷔갓치 노니다가 츙달의 털궁이

번듯ᄒᆞ며 원슈의 가슴을맛치니 원슈ㅣ 텰퇴를드러화살을밧으며 닐너ᄀᆞᆯ
ᄋᆞ되 활쏘ᄂᆞᆫ법을보니 공부가 도져ᄒᆞ도다 ᄒᆞ고 셔로 진즁에 좌츙우돌ᄒᆞ
며 십여합에 이르되 승부를 결단치못ᄒᆞᄂᆞᆫ지라 두진이 셔로 바라보고 황
진쟝졸은 원슈의 지조를 탄복ᄒᆞ고 젹진쟝졸은 츙달의지조를 탄복ᄒᆞ더라
ᄂᆞᆯ이 임의 졈을매 셔로 겨셔를 젼ᄒᆞ야 명일노 싸호쟈ᄒᆞ고 각々 본진으로
도라가니라 츙달이 션우의게 엿ᄌᆞ오되 젹쟝 회운은 진실노 범샹ᄒᆞᆫ 쟝
수가 아니오 ᄯᅩᄒᆞᆫ 지략이 겸젼ᄒᆞ니 여간힘으로ᄂᆞᆫ 가히 잡지 못ᄒᆞᆯ지라
비밀ᄒᆞᆫ 묘칙을 베프러 싸홈을 청ᄒᆞ야 승부를 결단ᄒᆞ리이다 ᄒᆞ고 즁군장
한ᄃᆡ영을 불너ᄀᆞᆯᄋᆞ되 그ᄃᆡᄂᆞᆫ 오ᄂᆞᆯ밤 삼경에 군ᄉᆞ 이만을 거ᄂᆞ리고 반운
산을 너머 우진강에 ᄆᆡ복ᄒᆞ면 나ᄂᆞᆫ 명일 평명에 군ᄉᆞ를 모라 진문밧게
나아가 금사진을치면 회운이 필경 군ᄉᆞ를 거ᄂᆞ리고 셔평관에 ᄃᆡ진ᄒᆞᆯ거
시니 셔평관은 본ᄃᆡ 험로오 ᄯᅩ 우진강이 얼지아니ᄒᆞᆫ지라 그ᄃᆡ가 강가에

유진ᄒᆞ얏다가 명일 초혼에 물을ᄃᆡ이면 회운이 물을 피ᄒᆞ야 응당 동평관
으로 가리라ᄒᆞ고 좌쟝군 굴만ᄃᆡ를 불너ᄀᆞᆯᄋᆞ되 그ᄃᆡᄂᆞᆫ 오ᄂᆞᆯ밤 삼경에 오
만군을 거ᄂᆞ리고 동평관에 매복ᄒᆞ얏다가 명일초혼에 회운이 동평관으로
갈거시니 일시에 이러나 둘너싸면 회운이 응당 동평관을 피ᄒᆞ야 평구로
가리라ᄒᆞ고 후군장 셔융을 불너ᄀᆞᆯᄋᆞ되 그ᄃᆡᄂᆞᆫ 오ᄂᆞᆯ밤 오경에 군ᄉᆞ 일만
을거ᄂᆞ리고 평구에 매복ᄒᆞ얏다가 명일 초혼에 회운이 동평관 복편을 피
ᄒᆞ야 평구로 가거든 일시에 이러나 고각함셩을 울니며 본진으로 가지못
ᄒᆞ게 ᄒᆞ라ᄒᆞᆫ되 모든장수ㅣ 명을듯고 밤이깁흔후 군을 거ᄂᆞ라고 한ᄃᆡ영
은 우진강에 ᄆᆡ복ᄒᆞ고 굴만ᄃᆡᄂᆞᆫ 동평관에 ᄆᆡ복ᄒᆞ고 셔융은 평구에 ᄆᆡ복
ᄒᆞ니라
각셜 장원수ㅣ 츙달의 흉계를 아지못ᄒᆞ고 진즁에셔 조으더니 의희ᄒᆞᆫ중
한로인이 아관도복으로 청려장을집고 진문을 헤치고 쟝ᄃᆡ에올나와 좌졍

ᄒᆞ거ᄂᆞᆯ 원수ㅣ 례ᄒᆞᆫ후에 로인다려 무러ᄀᆞᆯᄋᆞᄃᆡ 로인이 루디에 욕림ᄒᆞ샤 무ᄉᆞᆷ허믈을 가ᄅᆞ치고져 ᄒᆞ시ᄂᆞ잇가 로인이ᄀᆞᆯᄋᆞᄃᆡ 원수ᄂᆞᆫ 젹장의 흉계를 아ᄂᆞ잇가 원수ㅣᄀᆞᆯᄋᆞᄃᆡ 지각이 부족ᄒᆞ오ᄆᆡ 엇지 남의흉계를 알니닛가 쇼쟝을 고렴ᄒᆞ시와 원로에 수고를 앗기지 아니ᄒᆞ셧스니 ᄅᆡ두에 ᄉᆞᆼ픽를 ᄀᆞᆯᄋᆞ처쥬소셔 로인이ᄀᆞᆯᄋᆞᄃᆡ 명일 초혼에 셔평관에가 수지를 맛날거시니 급히 동평관으로 가ᄂᆞᆫ체ᄒᆞ다가 바로 운곡으로 드러가 복병ᄒᆞ고 잇스면 젹진에셔 원수ㅣ 동으로 피ᄒᆞᄂᆞᆫ쥴알고 뒤를싸르고 ᄯᅩ 흉달이 압흐로 지날거시니 원수ᄂᆞᆫ 군ᄉᆞ를 지촉ᄒᆞ야 흉달을 엄살ᄒᆞ고 다시 ᄇᆡᆨ운산 동편에가 ᄆᆡ복ᄒᆞ얏다가 젹병을 엄살ᄒᆞ고 흉달을 잡으라ᄒᆞ고 문득 표연이 가거ᄂᆞᆯ 놀나셔니 한ᄭᅮᆷ이라 그제야 도ᄉᆞ인쥴알고 공즁을 향ᄒᆞ야 무수이 사례ᄒᆞ고 몽ᄉᆞ를 긔록ᄒᆞ며 모든장수를불너 지휘방략을 발령ᄒᆞ니라 ᄂᆞᆯ이 밝으매 흉달이 군샤를모라 문밧게 진치거ᄂᆞᆯ 원수ㅣ ᄯᅩ훈 진을 옴겨 문밧

게치고 격셔를 젼ᄒᆞ여 싸홈을 쳥ᄒᆞᆫ디 흉달이 ᄃᆡ답ᄒᆞ되 오ᄂᆞᆯ은 군을 수이고 명일노 졉젼ᄒᆞ쟈 ᄒᆞ거ᄂᆞᆯ 원수ㅣ 진문밧게 나셔々 싸홈을도々되 흉달이 진문을 구지닷고 종시 나지아니ᄒᆞ며 모든장수를 불너닐오ᄃᆡ 불샹타 희운이여 오ᄂᆞᆯ밤 초혼에 우리 복병손에 죽을줄 아지못ᄒᆞ고 자연 혼이 벌셔 ᄯᅥ러져 싸홈을 도々와 목숨을 지촉ᄒᆞᆫ다 ᄒᆞ더라 원수ㅣ 본진에 도라와 군ᄉᆞ를 수이더니 ᄂᆞᆯ이 임의 셔산에 ᄯᅥ러지고 황혼이 되ᄂᆞᆫ지라 원수ㅣ 쟝ᄃᆡ에안져 몽ᄉᆞ를 ᄉᆡᆼ각ᄒᆞ고 두루 샹량터니 과연 ᄆᆞᆯ이 진즁에 가득ᄒᆞ거ᄂᆞᆯ 흉달의 흉계인쥴알고 동평관으로 가ᄂᆞᆫ체ᄒᆞ고 가다가 가만히 운곡에 드러가 군ᄉᆞ를 수이며 동편을 ᄉᆞᆷ혀보니 흉달이 원수의뒤를 ᄯᅩᆺ차 동편으로 향ᄒᆞ거ᄂᆞᆯ 원수ㅣ 군ᄉᆞ를 지촉ᄒᆞ여 흉달의뒤를 엄살ᄒᆞ고 ᄇᆡᆨ운곡으로 드러가 복병ᄒᆞ니라 흉달이 원수를ᄯᅩᆺ차 동평관으로붓터 셔릉에가니 굴만ᄃᆡ의 복병이 이러나 고각함셩을 울니며 활노쏘고 창으로치니 셔